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GLOBAL TOP 10 CITY INCHEON 세계 10대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4년 7월 3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담 당 자	• 자원순환정책팀장 오미애 ☎ 440-3561 • 담당자 이종성 ☎ 440-3564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 … 시 전역 공공기관으로 확대

- 공공기관 입점 업체 1회용품 사용 금지 의무화, 사용저감 우수업소 재정 지원 근거 마련도 -

인천광역시가 1회용품 폐기물 감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는 1회용품에 대한 실질적인 감량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2월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시 전역 공공기관 확대 시행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을 위해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에 다회용품 사용 확산 사업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 구체화와 실적 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계획 반영 △공공기관 주최 행사 및 청사 운영에 1회용품 사용 제한 강화(권고→의무) △ 공공기관 입점 업체 1회용품 사용 금지 의무화 및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조례는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되며 내년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시는 공공부문 1회용품 감량 실천을 위해 다회용컵 대여함과 반납함 17곳, 텀블러 세척기도 11곳에 설치하는 등 청사 곳곳에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인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축제인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잉크(INK)콘서트 등 대형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지원해 1회용품 감축 문화가 시민 문화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환 시 자원순환과장은 “기존에는 1회용품을 잘 선별해 적정 재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 안하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해 자원순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내 비치된 다회용컵 대여함 등)

다회용 컵(해빗컵)

대여함

반납함

텀블러 세척기

참고	조례 개정 내용

◇개정이유

1회용품 사용 감소와 다회용기 사용 장려 문화에 대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 문화를 민간으로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를 통하여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회용기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2호 신설)

나.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공공기관의 홍보물·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에 다회용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제1항, 제6조제5항 신설)

라. 공공기관 청사 안에 입점한 매점 등의 업소와 그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금지 의무와 해당 시설 등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1회용품 사용 최소화 노력을 규정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에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바.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에 대한 시장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제3항)